

옛 요정 호토로: 현관과 장부

호토로(蓬嶋楼)는 과거 산초마치 지역에서 가장 큰 고급 요리점 및 유흥음식점(요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은 19세기 후반에 건설되었는데, 오바마가 변화한 향구였을 무렵의 여러 찻집과 요리점, 여관이 있던 지역의 역사적인 분위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장인정신, 고품질 소재, 특징적인 건축, 세련된 인테리어는 호토로의 번영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명한 손님을 접대하던 요정으로서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관

현관에는 석등이 있는 작은 정원, 당시로서는 드문 타일로 된 바닥, 둥근 격자창이 있습니다. 현관은 원래 흙바닥이었지만 나중에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시공한 작은 도자기 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장식으로 보이는 창문처럼 시선을 끄는 세부적인 요소는 지금부터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요정 내 우아한 인테리어를 예감케 했습니다.

조바(帳場)

건물에 발을 들여놓으면 조바라고 하는 큰 접수 공간이 나옵니다. 여주인은 왼쪽 안에 있는 방에 앉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요청사항에 따라 준비를 했습니다. 느티나무로 만든 화로대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옛 요정의 역사적인 물건과 일용품

그 밖에도 조바에는 주목할 만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높은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등롱상자에는 가게주인이었던 무라타 가문의 원형 테두리 속 십자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의 이 부분에는 2개의 신도 제단이 있습니다. 입구에 면한 도쿄노마에는 상업과 농업의 신인 이나리를 모시는 작은 신사가 있고, 맨 왼쪽 방에는 그 가족의 제단(신단)이 있습니다. 신단 중 하나에는 상업의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후쿠스케(福助)라고 불리는 전통 인형이 여러 개 장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에는 손님을 불러들인다고 믿는 손짓하는 고양이 장식물(마네키네코)도 있습니다.